

ETF란 이름이 가려버린 위험



정운영
금융인사이트

ETF는 오랫동안 '분산투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고, 시장의 장기 성장에 함께 참여하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는 ETF라는 이름 앞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안팎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온 ETF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이다. 이름은 ETF이지만, 실제 구조는 특정 종목의 단기 방향에 크게 베팅하는 고위험 상품에 가깝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한때 매매 회전율이 20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이 상품이 장기 자산형성 수단이라기보다 단기 매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상품의 성공을 거래량이나 판매 규모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첫 번째 위험은 '이름의 착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누구나 아는 대표 기업이다. 소비자는 "좋은 기업 주식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상품은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다르다. 특정 종목의 하루 가격 변동률을 두 배로 증폭시키는 구조다. 기초주식이 하루 10% 오르면 상품은 약 20%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하루 10% 떨어지면 손실도 약 20%로 커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장기적으로 기초주식 수익률의 두 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매일의 등락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의 수익률을 두 배로 만들어 주는 상품이 아니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첫날 주가가 10% 떨어지면 투자금은 90만 원이 된다. 다음 날 주가가 다시 10% 오르면 9만 원이 늘어나 99만 원이 된다. 이를 동안 주가는 크게 내려갔다 다시 올랐지만, 처음의 100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같은 기간 2배 레버리지 ETF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상황은 더 다르다. 첫날 주가가 10% 떨어질 때 투자금은 약 20% 줄어 80만 원이 된다. 다음 날 주가가 10% 오르면 투자금은 약 20%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금액은 처음의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기준으

로 한 16만 원이다. 결국 계좌에는 96만 원이 남는다. 주식이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3만 원을 더 잃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지, 오늘의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섣뜻 답하기 어렵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낫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장기 성장을 믿는 투자자라면 현물 주식, 반도체 산업 ETF, 보다 분산된 지수형 상품이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물론 장점도 있다.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고, 투자 기간과 손절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둔 투자자에게는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생활비, 대출금, 전세자금, 노후자금 처럼 삶의 안전망과 연결된 돈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레버리지 상품에 신용융자나 미수거래까지 더해지면 투자 실패는 곧 가계의 위기로 변질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소비자에게 한 번 더 경고문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안 된다. 소비자가 실제 손실 가능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품 판매와 거래 구조 자체를 설계해야 한다. /금융과행복네트웍 이사장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4일 (음 5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60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72년생** 오늘 하루는 대체로 원만하게 흘러갑니다. **84년생** 술자리를 조심하세요.
- 49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61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3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 50년생** 곤경에 빠질수록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으로 하세요. **62년생**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렵습니다. **74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를 보셔야 합니다. **86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 51년생** 부지런히 뛰며 다녀다며 움직여야 합니다. **63년생** 한가지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87년생**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 52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4년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88년생** 모든 것이 길하고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 53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5년생**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77년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세요. **89년생** 시끄러운 곳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 54년생** 단순한 놀이에 목숨걸고 달려들지 마세요. **66년생** 거짓말은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78년생** 만물엔 이치가 있는 법. **9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 55년생** 기분 좋은 여행을 떠나세요. **67년생** 동북방이 길방이나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79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반성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 56년생**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조심하세요. **68년생**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80년생** 사업확장은 당분간 금물입니다. **92년생** 친구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걸지 마세요.
- 57년생** 귀인은 이미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69년생** 오늘은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81년생** 음식으로 인한 문제를 조심하세요. **93년생** 돈대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 58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선의 모습입니다. **70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8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94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 5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1년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95년생**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모차르트를 잃는 AI 강국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얼마 전 카페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네댓 명이 인공지능(AI)을 화제로 삼고 있었다. 챗GPT가 낫다, 제미니가 편하다, 중국 AI가 의외로 잘 만든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AI는 어느새 개발자나 대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년층까지 사용하는 생활 도구가 됐다. 취재 현장에서조차 변화는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학벌을 보지 않겠다는 채용 기조를 내세웠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엔비디아 본사를 찾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했을 때는 그가 먹던 치킨을 건너자 손을 뻗어 받

아가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AI는 반도체와 전력, 로봇, 의료, 국방까지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증기기관이 영국을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인터넷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었다. AI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좀처럼 오지 않을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AI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 누군가 AI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줄였다고 하면 "일할 시간에 탄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일 안 하고 주식만 했겠네"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물론 이런 모습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고, 중국 청년들은 '탕핑'과 '네이쥘인'이라는 말로 현실을 설명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

릴수록 남의 성공을 응원하는 여우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영화 《아마테우스》의 살리에리는 성실했고 무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모차르트라는 압도적인 재능을 마주한 순간부터는 스스로 더 나아질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모차르트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다. 젠슨 황이 건넨 치킨 한 조각에 손을 뻗는 사람들이 등장할 만큼 AI 열기는 뜨겁다. 하지만 정작 옆자리에서 그 기술로 한발 앞서간 사람에게는 박수보다 의심이 먼저 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우리는 모차르트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다만 언젠가 나도 모차르트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AI는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그 믿음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흘려보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일지 모른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치원착월

'치원착월(馳遠捉月)'이란 어리석은 원숭이가 달을 잡는다는 뜻으로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원숭이를 이르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자성이 중국 역사와 관련하여 유래된 것이 많지만 이 사자성은 각별히 불교설화와 관련이 있다.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4대 율장 중 하나인 '마하승기율'에서 유래하는데, 옛날 인도(古印度)의 가시(伽尸)국 파라나(波羅羅)성 근처 숲에 살던 오백 마리 원숭이 떼 이야기다. 어느 보름날 밤 원숭이들이 연못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순간 하늘에 있어야 할 달이 연못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원숭이들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연못 물에 비추는 것으로 생각지를 못하고 달이 연못물에 빠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하늘의 달이 또 연못에 빠지게 되면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은 무서운 것이니 달이 물속에 가라앉기 전에 건져내기로 한다. 그러자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묘안을 낸 것이, 나무에 올라가 연못가로 늘어진 나뭇가지를 잡고서 이어 매달려 달을 물속에서 건져 올리기로 한다. 하지만 원숭이 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원숭이들은 모두 연못에 빠져 수장되었다. 여기서 나온 고사가 바로 치원착월이다. 후에는 이들 500마리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으로 환생하여 오백 나한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설화의 사실 여부는 그렇다 치고 원숭이들이 나무에 매달려 달을 건지려는 불교 설화의 내용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한국에도 있는데, 울산시에 있는 가지산 석남사의 극락전 벽에 이 모습이 보인다. 석남사는 신라 헌덕왕 때 도의(道義)선사가 호국 기도 도량으로 창건한 선찰(禪刹)이니 이미 천년을 넘은 세월 속에 중생들이 무지하고 무모함을 경계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경계한 무지와 무명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교훈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한바탕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3 | | 6 | | | | 4 | 2 |
| 7 | 6 | | | 1 | | 9 | 3 |
| | 1 | | | | | | 8 |
| | | | 7 | 3 | 9 | | |
| | 3 | | 5 | | 6 | | 9 |
| | | | 1 | 8 | 4 | | |
| 2 | | | | | | | 7 |
| | 7 | 1 | | 4 | | | 8 |
| 8 | 4 | | | | | 7 | 3 |

| | | | | | | | |
|---|---|---|---|---|---|---|---|
| 5 | 4 | | | 3 | 6 | 9 | 2 |
| | 2 | | | 5 | | | 6 |
| 1 | | | 4 | | | | |
| 4 | | | | | | 1 | |
| 3 | 8 | | | | | | 5 |
| | | | 2 | | | | 7 |
| | | | | | 8 | | |
| 9 | 3 | | | 1 | | | 7 |
| 2 | | 6 | 5 | 7 | | | 9 |

| | | | | | | | |
|---|---|---|---|---|---|---|---|
| 8 | 1 | 2 | 6 | 9 | 9 | 7 | 8 |
| 9 | 8 | 2 | 7 | 4 | 1 | 2 | 6 |
| 7 | 2 | 1 | 9 | 8 | 6 | 2 | 3 |
| 6 | 2 | 8 | 7 | 8 | 1 | 2 | 9 |
| 2 | 6 | 8 | 9 | 2 | 7 | 4 | 1 |
| 1 | 9 | 7 | 6 | 2 | 2 | 8 | 2 |
| 8 | 9 | 9 | 2 | 2 | 6 | 1 | 7 |
| 6 | 9 | 2 | 7 | 9 | 1 | 6 | 2 |
| 2 | 7 | 1 | 2 | 9 | 6 | 9 | 8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8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42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